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김 영 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남북정상회담은 누가 그것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가 달라진다. 김대중 대통령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노무현 대통령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그 의미와 내용이 같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대통령으로서의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추구할 것이다. 필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북한 경제에 대한 생각을 실천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껏 남한이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협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원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문제는 다른 아닌 평화와 협력과 화해의 문제다.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노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생각은 어떨까? 북한이 남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대내외적인 목표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북한 측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남한이 원해서 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현금을 받았지만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쪽 상황이 변한 것을 잘 알 것이다. 현금을 받지 않고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태여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 경제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구호성 지원보다는 '경제개발지원'을 원해온 것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기대치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노대통령에게 대북 경제지원을 반드시 정치·군사 분야,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의 연계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성공하기도 힘들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 핵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문제로 6자회담의 틀에서 그 해결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핵문제 해결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북미 관계개선의 문제로 굳어진 지 오래

다. 북한으로서는 남한과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해결을 만들어내야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북한은 국제차원의 핵문제 해결을 남한에 담보해주는 정도를 남한에 베풀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대신, 남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평화선언’이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선언에 북한이 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는 데는 일단 동참만하면 되기 때문이다.

위 둘을 종합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는 국제차원에서의 핵문제 해결을 담보하면서 ‘한반도 평화선언’에는 북한이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그와 같은 정치·군사적인 호응에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을 받아내려고 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자칫 남북정상회담이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채, 대규모 경제지원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차기정부에 부담만을 지우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그와 같은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과 우리의 인식

필자는 대북 경제지원이 남과 북에 공히 이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그와 같은 북한의 변화나 한반도 평화정착이 경제지원을 대가로 당장 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과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장기간 꾸준하게 이루질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북 경제지원 문제는 결국 우리의 인식과 의식에 대한 문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 모두에 언급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바로 대북 경제지원 문제에 대한 우리 생각의 변화와 연관된 문제가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관건은 앞서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 경제에 대한 생각, 북한이 남한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을 정치나 군사 및 인도적 분야의 문제와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켜 담아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고민해야 할 일일 것이다.